

韓日 지식인 120명에게 물었다

한국의 藝는 인정한다 한국의 知엔 뭐가 있나



노마 히데키 교수는 10일 "이 프로젝트는 한국의 지(知)에 대해 일본에서 뭘 알고 있느냐는 문제 의식에서 출발했다"면서 "120명 양국 지식인이 힘을 합치는 만큼, 뭔가 묻어 열리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이진한 기자

어수웅 기자의
복앤수다



'한국의 知' 기획한 노마 히데키

한글학회 주최의 지난해 주시경학술상 수상자 선정은 과격이었다. 수상자는 노마 히데키(野間秀樹·60) 일본 국제교양대 교수. 6회를 맞은 주시경상을 외국인인 받은 것은 처음이었고, 그것도 독도 문제로 한·일이 열어붙을 때였다. 일본에서 먼저 출간된 그의 책 '한글의 탄생-문자

식인 40명)의 총합이다. 그는 일본어 억양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 능숙한 한국어로 답했다.

-이 기획을 시작한 계기와 의의는. "심한 말일지 모르지만, 일본에서는 '한국'이라는 단어와 '지(知)'라는 단어가 붙어서 논의된 적이 기본적으로 없다. 물론 한국의 예술, 영화와 드라마, 노래, 배우, 가수 등 대중문화는 일본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예술로서 감동하긴 했지만, '지'로서 함께하는 대상은 아니었다. 내 책 '한글의 탄생'은 한글이라는 문자를 '지'의 측면에서 쓴 것이었다. 이 책은 그다음 단계,

로 일본 대중에게도 친숙한 전 도쿄 외대 학장 가메야마 이쿠오,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 '화산도'의 교포 작가 김석범, '유레루'를 만든 영화감독 니시카와 미와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한국에서는 문학평론가 김병의 백낙청, 시인 신경림, 소설가 성석제 김연수, 건축가 승효상, 영화감독 이명세, 화가 이상남 등의 이름이 보인다.

-정탁서에는 정확히 뭐라 적었나. "한국의 '지'에 관한 책을 1~5권 추천해 달라. 그리고 그에 관한 당신의 생각을 2000자 정도 써 달라." -다들 흔쾌히 응낙했나.

라타니 선생은 예전에는 '축소지향...'을 비판했는데, 지금이야말로 이 책을 다시 읽어야 할 때라고 했다. 아마도 최근 한일 관계에 대한 성찰로 보인다. 가메야마 선생은 김지하 선생에 대해 '두 번에 걸쳐 사형 판결을 받은 그를 생각하면 몸이 얼어붙는 느낌. 이렇게까지 강한 사랑이 한국에는 있구나'라고 썼다. 일본에는 그런 지식인이 없었다. 외교적인 표현 없이 솔직하게 써 주셔서 감동했다.

-의미 있긴 하지만, 한국의 지를 보는 창(窓)으로서 편협한 느낌도 있다. 모두 70~80년대 책이기도 하고.

▶ 노마 히데키

노마 히데키 교수는 원래 미술학도였다. 후쿠오카 출생으로 도쿄교육대 예술학과에서 구성을 전공했고, 1979년 '7인의 작가: 한국과 일본'에 참가하며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았다. 그는 당시 이론과 창작을 아울러던 이우환에게 깊은 영향을 받았다고 했다. "한국을 낮추볼 때였는데, 현대미술 하는 일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 이우환 선생 때문이었다." 73학번 미술학도는 그렇게 도쿄외국어대 조선어학과 83학번으로 인생 궤도를 틀었고, "사전을 수만번씩 찾는" 열정적 한국어 학자가 됐다.

주시경상 받은 일본인 학자

3년 전 출간된 '한글의 탄생' 한·일 모두 화제적으로 선정

라는 기적' (2010)은 3만부가 팔리며 일본 지식인 사회에 파문을 일으켰고, 이듬해 한국어로도 출간돼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2011 올해의 책'으로 선정됐다.

이 희귀하고 정열적인 학자가 다음 프로젝트를 본지에 처음 공개했다. 한국과 일본의 지식인 120명이 함께 쓰는 '한국의 지(知)를 읽다'. 8월 일본 쿠은 출판사 출간 예정인 이 책은, "나는 어떤 책을 통해 한국의 '지'를 알았다"(일본 지식인 80명)와 "나는 한국의 '지'를 알리기 위해 이 책을 소개하겠다"(한국 지

'한국의 知' 시작한 건...

한류 문화 환호하는 일본서도 '知'는 제대로 논의된 적 없어

'지'로서 한국을 이야기하는 첫걸음이다."

-120명을 선택한 기준이라면.

"(웃으며) 내 친구가 리스트를 보더니 '무슨 기준으로 했는지 알겠다. 퀄리티(Quality)!' 하더라. 지금까지 원고를 보내준 분이 일본인 80명, 한국인 40명이다. 일본인 80명에는 제일교포 15명이 포함되어 있다. 질을 따지다보니 이름에서 이데올로기가 먼저 떠오르는 분들이 제외됐다."

이 리스트에는 사상가이자 문예비평가 가라타니 고진, 100만부 넘게 팔린 번역서 '카라마조프의 형제들'

日 80명·韓 40명이 쓴 '知'

한국 책 추천해달라고 했더니 이어령·김지하·한강 등 다양

"처음에는 응답률이 20%였다. '재미있고 중요한 건 알겠는데, 나는 한국의 지를 잘 모른다'고 하더라. 그래서 '어딘가에서 한국의 지와 스치거나 엇갈리거나 부딪힌 순간들이 있지 않은가. 그런 부분들을 써달라'고 다시 청탁했다."

-가장 많이 추천받은 책은.

"지금 통계를 내고 있지만, 압도적인 책은 없어 보인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다양하다. 가령 가라타니 선생은 이어령 선생의 '축소지향의 일본인', 가메야마 선생과 와다 선생은 김지하 선생 책을 추천했다. 가

일본인이 왜 한국 연구를?

불문학자가 불문학 몰두하듯 난 한국 공부 재밌다, 정말

"꼭 그렇지는 않다. 두 나라 학자들은 실시간으로 서로의 연구 성과를 교류하고 있다. 최근 번역서는 문학 서적이 절대 다수다. 가메야마 선생이 1번으로 추천한 책은 사실 한강의 '채식주의자'였다. 신경숙, 김애란 등도 실시간으로 번역되고 있다."

-당신은 일본인인데, 한글과 한국에 더 열정적이다. 만약 어떤 일본 민족주의자가 어찌 그러느냐 묻는다면.

"한국에도 목숨 걸고 러시아 문학이나 불문학 하는 분들이 있지 않은가. 그렇게 묻는 민족주의는 위태롭

다. 제일 솔직한 대답은 재미있기 때문이다. 오해를 부를지도 모르지만, 지금까지의 양국 교류는 문화에 기반한 감성적인 접근이었다. 그런 접근은 누구나 가능한 것이 아니다. '지'를 통한 접근은 아무래도 제한적이다. 나 혼자면 턱도 없지만, 120명이 모이면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겠나." 주시경상을 받기 전에, 그는 2010년 '한글의 탄생'으로 마이니치 신문사가 주관하는 아시아태평양상대상을 먼저 받았다. 한 나라 입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한 학술서였다면 불가능했을 일이다. 편협한 내셔널리즘의 창(窓)이 아니라 보편적인 지와 공부의 기쁨. '한국의 지를 읽다'를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이유다.

'한글의 탄생' 노마 히데키, 한국의 知 찾아나섰다...왜?

기사입력 2013-06-14 10:46

【서울=뉴시스】 이재훈 기자 = "감성적인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반응할 수 있다. 무엇인지 잘 몰라도 '귀엽다' '사랑스럽다' 등을 표현할 수 있다. 그런데 지성은 그렇지 않다. 언어화하지 않으면 안 되고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지성 없이 감정만 앞에 나타나기 시작하면, '너와 나는 다르다'라는 생각만으로 끝난다. 그 뒤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비참한 폭력이다."

한글의 위대함과 섬세함을 논의한 '한글의 탄생-문자라는 기적'을 통해 한-일 지식사회에 화두를 던진 노마 히데키(60·野間秀樹) 일본 국제교양대 교수가 한국에 대한 또 다른 프로젝트를 가동 중이다. 한일관계가 악화된 시점에 한국의 지(知)를 일본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작업이다. 일본 지식인 80명과 한국 지식인 40명이 참가하는 '한국의 지(知)를 읽다'가 그것이다. 총 120명에게 한국의 '지'를 알릴 수 있는 책을 1~5권씩 추천받고 이에 대한 2000자 가량의 소개글을 정탁했다. 지난해 7월 시작된 이 작업은 진척도 95%를 보이고 있다.

8월 일본 쿠온 출판사를 통해 출간 예정인 이 책의 마무리 작업과 참여 저자들을 만나기 위해 노마 교수가 우리나라에 왔다. 지난해 한글학회 주최 주시경학술상을 받은 노마 교수는 '한글의 탄생-문자라는 기적'에서 한글을 '지(知)'의 혁명이라고 봤다. '한국의 지(知)를 읽다'는 이러한 전제가 바탕이 됐기 때문에 가능했다.

"'한글의 탄생'을 통해 한글을 문자로 논의하는 것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된 상황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작업이다. 한글이 '지'라면, 그것을 바탕으로 한 한국 책을 읽는 지식인, 독서인들이 생각하는 지가 무엇인지 알고 싶었다."

일본에서 한국의 예술과 대중문화는 높게 평가받고 있다. "(한국의 미에 관심을 쏟은 일본의 미술 이론가) 야나기 무네요시도 있지만, 문화재 뿐 아니라 문학과 춤, 영상, 영화 등에 대한 관심이 전반적으로 높다. 최근에는 싸이도 있고. 그런데 그 사이에 '지'의 자리는 암흑같이 텅 비어있다. 그것을 알고 싶었다."

'지'로 접근하는 것과 '감성'으로 접근하는 것은 다르다. "지는 반드시 언어를 통해서 접해야 한다. 다른 말로 하자면,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언어를 의식하지 않으면 지적인 접근이 어렵다. 지라는 것은 책으로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책의 힘이라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이다. 그래서 필자들에게 책 소개를 부탁했다."

평론가 가라타니 고진, 일본에 도스토옙스키 붐을 일으킨 가메야마 이쿠오 도쿄외국어대학 전 학장, 나고야외국어대학 학장, '이십억 광년의 고독'으로 유명한 시인 다니카와 슌타로 등 일본의 문화인들부터 권재일 전 국립국어원 원장, 김성곤 한국문학번역원 원장, 김연호 파주출판도시 이사장, 소설가 김연수 성석제씨, 건축가 승효상씨, 영화감독 이명세씨 등 한국의 문화인들까지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 필자로 참여한다. "한마디로 '지'라는 명제에 진지하게 대할 수 있는 분들"을 가려냈다. "지와 거리를 두며 시니컬하게 대하는 분들보다 진지하게 생각해주는 분들을 찾았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받은 답변들을 살펴보면, 시인 김지하씨의 책이 눈에 띄나 무엇 하나 압도적인 추천을 받은 책은 없다. 노마 교수는 그런데 이런 점이 마음에 들었다.

"아무래도 지는 넓은 것이다. 몇몇 사람이 세계이거나 전체일 수 없다. 다양하게 보는 법이 필요하다. 굳이 한국인과 일본인이 아니더라도 한국인 한명한명, 일본인 한명한명이 모두 다르다. 개개인마다 살아온 환경과 역사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 책 역시 지극히 일부의 생각만 담았지만 책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인정이 되면,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 모두 사이 좋게 지내거나 싸우자 말자는 것은 아니다. "지층 깊은 곳에 있는 '지'를 확실하게 안 뒤 무엇이든 시작하자"고 청한다. "다 다른 존재인데 뭉거나 그룹을 만들어 가면, 경계선이 만들어진다. 사람들 사이에 38선이 생기는 것이다. 예컨대 한국의 지식인, 일본의 지식인이라는 표현보다 한국어권 지식인, 일본어권 지식인이라는 말이 더 많은 것을 포함한다. 일본의 지식인에는 재일동포가 있을 수 있다. '권'이라는 말은 그러한 사람들도 포함한다. '지'라는 것은 이런 배려와 생각을 가능케 하는 이성의 힘을 키운다."

노마 교수는 1970년대 일본에서 김민기, 양희은의 노래를 해적판으로 들었다면서 이들을 좋아한다며 웃었다. 1996~1997년 서울대학교에서 한국문화연구소 특별연구원 시절 대학생들이 시위하고 최루탄을 맞는 모습을 수차례 목격하기도 했다. 한국 근현대사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겠지만, "다른 일본인들보다 근접해 있을 뿐"이라고 답했다. 노마 교수는 단어 하나하나를 곱씹었고 신중했다. 한국의 '지'를 알아가고 알리는 그의 작업은 한국과 한국인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과정이기보다 존재 자체를 받아들이는 배려였다.

◇노마 히데키

1970년대 현대미술가로 개인전을 8차례 연 특이한 경력의 언어학자다. 류빌리나 국제 판화비엔날레, 브랜드퍼드 국제판화비엔날레 등 국제전에 출품하기도 했다. 1979년에는 한국과 일본의 젊은 현대미술가 7명이 참여한 '7인의 작가-한국과 일본'이라는 그룹전을 서울과 도쿄에서 주도했다. '한국의 지(知)를 읽다'에도 참여한 서양화가 이상남씨와는 이 때 연을 맺고 친분을 이어고 있다. 그러다 독학으로 공부하던 한국어의 매력에 빠져 1983년 서른의 나이에 도쿄외국어대학교 조언어학과에 입학했다. 이후 한국어학자로 인정받으며 2005년 대한민국문화포장을 받았다. '한글의 탄생'은 마이니치신문사 주관 제22회 아시아태평양상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한국과 일본의 연구자 60명 이상이 공동으로 집필하고 있는 '한국어 교육론 강좌', 한국어 학습서 '한국어학습 강좌 린(RIN)' 시리즈의 주역이다.





동감내기 친구 노마 히데키(왼쪽)와 이상남은 올해 예순 살이 됐지만 사진 촬영 내내 장난꾸러기들처럼 유쾌하게 놀고 떠들었다.

권혁재 사진전문기자

친구야, 한·일 지성의 만화경 우리 손으로 펼쳐보자

〈萬華鏡〉

노마 히데키·이상남 35년 우정
『한국의 지를 읽다』로 다시 만나
양국 지식인 120여 명에 질문

사람 사이의 인연은 알 수 없다. 노마 히데키(60·일본 국제교양대 객원교수)가 1978년 일본 도쿄 센추럴 뮤지엄에 걸린 이상남(60)씨의 작품 앞에 섰을 때 그림이 가슴에 딱 꽂혔고, 노마는 이씨에게 한글로 편지를 썼다. 35년 전 벼락같이 시작된 이들 우정은 국경을 뛰어넘은 한 권의 책으로 탄생한다. 일본 쿠온출판사(대표 김승복)가 오는 8월 펴낼 『한국의 '지(知)'를 읽다』는 친구의 나라와 언어를 사랑하게 된 일본인 학자가 서로의 앞을 바탕으로 펼쳐내려는 두 나라의 삶이다.

이상남(이하 이)=우리가 처음 만난 게 25살 때, 너도 미술가였지. 겁도 없이 '7인의 작가, 한국과 일본'전을 기획해 서울 한국화랑과 도쿄 마키화랑을 오가며 엄혹했던 1970년대 후반을 그림으로 후려쳤다.

노마 히데키(이하 노마)=그 동안 자주 만나는 못했지만 서로 뭘 하는지는 아니까 재회의 기쁨이 더 커. 『한국의 지를 읽다』의 디자인을 하다가 우연히 너의 작품 특징이 실린 잡지를 발견해 표지를 삼는 식이지.

이='한국의 지'란 주제로 매일 만나 일 꾸미는 게 어찌나 신나던지 열정적으로 빠져 버렸어. 내가 아는 문화인들을 총 동원했지.

노마=한국의 지적 세계를 서구에선 너무 몰라. 한국 대중문화의 접대기만 소비하고 있어서 안타까워. 그걸 깨고 싶은 거야.

이=한국의 지를 어떤 책을 읽으며 알게 됐는지 털어놓는 사람들 선택이 흥미로워.

노마=사상가 가라타니 고진이 이어령의 『축소지향의 일본인』, 양심적 석학인 와다 하루키가 이영희의 『분단민족의 고뇌』, 러시아 문학자 가메야마 이쿠오가 한강의 『채식주의자』, 소설가 호시노 도모유키가 황석영의 『오래된 정원』을 골랐어.

이=한국 쪽에선 건축가 승효상이 이문구의 『관촌수필』, 문학평론가 김병익이 박경리 대하소설 『토지』, 영화감독 이명세가 최

인호의 『가족』, 소설가 김연수가 『이상(李箱) 전집』을 꼽았지.

노마=500쪽에 달하는 이 작업은 아마 사상 처음으로 한·일 지식인 120명이 함께 하는 프로젝트일꺼야. 불편한 정치적 현실을 뛰어 넘고 싶은 많은 이들이 동감하리라 믿어.

이=년 미술을 할 때도 진지하고 집요했지. 도쿄 집에 가보면 사방천지가 책이라 지진 났을 때 위험할 정도잖아, 깔릴까봐. 아직도 동화 속에 살고 있는 듯 꿈을 일구어가는 그 지적 여정에 벗으로 함께 할 수 있어 기뻐.

정재숙 문화전문기자 johanal@joongang.co.kr

◆**노마 히데키(野間秀樹)**=1953년 후쿠오카생. 미술가로 활동하다 한국어 공부. 2010년 쓴 『한글의 탄생-‘문자’라는 기적』으로 2012년 주시경 학술상 수상.

◆**이상남**=1953년 서울생. 홍익대 서양화과 졸업 뒤 81년 뉴욕에 정착, 철학을 품은 작품세계로 국제 화단의 평가받아. 지난 5월 도쿄 주일 한국대사관에 대형 벽화 설치.

한·일 지식인 120명, 한국의 지적세계 훑는다



한국과 일본의 지식인 120여명이 한국인이 쓴 책이나 한국의 지(知)에 관해 쓴 책들을 중심으로 한반도의 '지적 세계'를 읽어내는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이번 여름 일본에서 먼저 나오고 뒤이어 한국에서도 번역 출간될 500여쪽 분량의 책 <한국·조선의 지(知)를 읽는다>(작은 사진)가 그것.

일본에선 사상가 가라타니 교진을 포함해 가메야마 이쿠오 전 도쿄외국어대 학장, 철학자 니시타니 오사무, 비교문학자 요모타 이누히코, 소설가 김석범·현월·호시노 도모유키,

가라타니 교진·하루키·니시카와 백낙청·성석제·승효상·이종묵 등 양국 지식인 전례없는 공동집필 '열하일기'서 '나의 문화유산...'까지 문학과 사상·건축·역사 지적여행 일본서 먼저 '한국·조선의 지' 출간

한국문학 연구자 오무라 마스오, 영화감독 니시카와 미와,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 이탈리아 문학 연구자 와다 다다히코 등 8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 중 10여명은 재일조선인이다. 한국에선 평론가 김병익·백낙청·최원식, 한길사 대표 김언호, 시인 신경림, 소설가 성석제, 건축가 승효상, 극작가 이강백, 화가 이상남, 고전문학자 이종묵 교수 등 40여명이 집필자로 참여한다.

일본에서 한국 대중문화는 '한류 붐' 등을 통해 이미 널리 알려져 있지만, 한국의 지식세계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이런 현실을 바꾸는 일에 이렇게 많은 두 언어권의 지식인들이 함께 나선 것도 전례없는 일이거니와, 하나의 책에 공동 집필자로 나선 것도 전에 볼 수 없었던 일이다. 특히 일본의 우경화 흐름 속에 한·일 간 외교 경색이 다른 분야까지 파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뜻깊은 작업이



한글 연구자 노마 히데키 국제교양대학 객원교수(전 도쿄외국어대 대학원 교수)가 어울려 한·일 지식인 120여명이 필자로 참여한 <한국·조선의 지를 읽는다> 출간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라 할 수 있다.

이 프로젝트의 기획자는 베스트셀러 <한글의 탄생-문자라는 기적>(돌베개, 2011)을 쓴 한글 연구자 노마 히데키(60) 국제교양대학 객원교수(전 도쿄외국어대 대학원 교수). 최근 서울에서 만난 노마 교수는 "한·일 간에는 문화도 정치도 서로 많이 알고 있지만, 그 중간 부분인 '지'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 모른다. 이웃인 두 나라가 이런 상태로 계속 갈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작업에서 핵심은 '지'와 '(경계를 넘어) 함께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일 간에는 요즘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지만 감성적 만남은 출발점에 지나지 않는다. 모든 건 이성 의 빛으로 비춰 봐야 한다. 정치도 마찬가지다. 그 모든 소통의 기반이 되는 것, 그것이 이성의 빛, 즉 지다. 지가 없으면 감정적 대립을 빚기 쉽고 결국 전쟁과 폭력이라는 비참으로 나아

갈 수 있다. 다시는 절대로 그런 상태로 가선 안 된다."

감성은 문자 없이도 가능하지만 지적 작업은 말과 글과 책을 토대로 이뤄진다. 젊은 시절부터 그가 해오던 생각이 구체화된 것은 도쿄에서 한국 책들을 일본어로 번역 출간하는 출판사 쿠온(CUON)의 대표 김승복씨를 만나의 기투합하면서였다.

지금까지 출판사에 글을 보내온 120명은 각각 1~5권의 책을 선별해 그와 관련한 생각을 200자 원고지 10장 정도로 정리했다. 노마 교수는 문학, 사상, 예술, 역사, 건축, 그리고 짜장면까지, "그러려라 집작은 했지만 생각보다 훨씬 더 다양한 주제들이 다뤄졌다"고 했다.

예컨대, 가라타니는 이어령의 <축소지향의 일본인>에 관해 썼는데, "출간 당시 그 책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그가 이번에는 지금이야말로 그 책을 다시 읽어야 한다며 재평가했다"고

노마 교수는 전했다. 와다 교수는 리영희 교수의 여러 저작들에서 선별해 엮은 일본어판 <분단민족의 고뇌>와 김지하의 <밥(飯)·활인(活人)>, 그리고 자신의 <이것만은 알아줘야 할 일본과 조선의 100년사>에 대해 썼다. 가메야마 전 학장은 이회성의 <다듬어질하는 여자>, 한강의 <채식주의자>, 김지하의 <불귀>를 다뤘다. 두 사람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작가 또는 책은 박경리의 <토지>, 유홍준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신경림 시집,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 신영복의 <변방을 찾아서>, <김수영 전집>, <증보정본 이상 문학 전집>, 리영희의 <전환시대의 논리> 등이다. 강희안의 <양호소록>(이종묵 역해)과 박지원의 <열하일기>(김철조 옮김)도 대상 책 목록에 들어 있는데, 이것으로 <한국·조선의 지를 읽는다>는 책 제목의 조선이 남북뿐만 아니라 조선왕조까지 대상 범주에 넣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송동 기자 sdhan@hani.co.kr